

지역 매아리

부안군, 마을지도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부안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변산면을 시작으로 4개면(변산, 줄포, 상서, 주산) 마을지도자(이장 등) 149명을 대상으로 각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마을지도자부터 술선수범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각종 응급처치요령 등 이론과 실습위주로 진행됐다.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의 최초 발견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망감을 갖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해 달라"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건강한 여름나기 시민 건강 지키기 '눈길'

정읍시가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 보건소는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과 보건지소·진료소 직원 등 50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정방문과 안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게재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헝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읍시산방병원과 온열 질환 신고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 홍보와 더위방지를 목적으로 부채 3천개를 제작 배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온열 질환은 여름철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대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무더위쉼터 이용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의 또 하나의 힘!'

유진섭 시장, 무성서원서 세계유산 등재 기자 간담회·후속대책 등 밝혀

정읍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된 가운데 정읍시가 등재 의의와 앞으로의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을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10일 무성서원 강당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와 앞으로의 보존·활용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7.6.~7.7.)에 참관, 9일 새벽 귀국했다.

현지 감동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기된 표정으로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나서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노력해왔던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의 꿈이 11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무성서원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감동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읍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경사이며 한국을 넘어 세계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이 모든 성

과는 그동안 시민들과 무성서원 관계자, 언론, 학계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 생각한다"며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이 더 새롭고 더 크게 알려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의 가치를 소개하고 전북도와 논산, 경주, 안동, 장성 등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성서원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온전히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 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임을 전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와 역사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계획 중인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비문화수련원은 호남 선비정신과 풍류 문화를 배우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선비문화 체험과 한옥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체험객들의 윤리관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꾀한다는 취지다.

유 시장은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원의 본래 모습과 가치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인지지도와 활용도는 물론 서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힘을 모으겠다"며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와 함께 무성서원을 활용한 사업과 공연·강좌·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산하 전 직원들에게 "정읍의 또 하나의 힘! -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처 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를 통해 유시 정은 "세계유산이 된 무성서원은 정읍의 또 하나의 힘이 될 것이다"며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무성서원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인류의 브랜드로 키워 가는 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상하농원의 상하농원이 올해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고창 상하농원, '국토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쾌거

고창군 상하면의 '농촌테마공원(상하농원) 조성사업(농어촌공사 시행)'이 올해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농생명·녹색경관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2019국토대전'이 11일 서울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시행한 '고창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상하농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가상의 마을을 계획가가 상상하고, 이를 건축가의 능력과 민자유치를 통한 기업의 지원으로 현실로 만들어낸 사례"라며 "150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농촌마을을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 농촌마을이다"고 호평했다.

상하지구 농촌테마공원(이하 상하농원)은 지난 2010년 농식품부의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면서 민관이 협업해 투자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예술·건축·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해 아름답고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상하농원은 경관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를 자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장 이후 약 33만명이 상하농원을 찾고 있으며 지역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민관이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별한 사람들의 감동 이야기'

부안예술회관서 18일 '나의 특별한 형제' 무료 상영

부안군은 오는 18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등 2회에 걸쳐 부안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를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는 옥상효(방가방가, 강철대오 등) 감독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지체장애인 세하(신하균 분)와 지적장애인 동구(이광수 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며 사는 이야기다.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 동구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는 형 세하, 뛰어난 수영실력을 갖췄지만 형 세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동생 동구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다.

어느 날 형제의 보금자리 '책임의 집'을 운영하던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지원금이 끊기게 되고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고 만다.

세하는 '책임의 집'을 지키고 동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구청 수영장 알바생이자 취준생 미현(이수)을 수영코치로 영입하고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켜 사람들의 이



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한다.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형제 앞에 등장하면서 형제는 새로운 위기를 겪게 되는데 서로가 헤어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영화는 장애가 있는 없든 다르지 않다는 점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정말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위대한 농민혁명의 시초 가슴에 새기다

고창동화농민혁명 무장포고문 필사 챌린지 60일 대장정 마감

125년전 위대한 농민혁명의 시초가 된 고창 무장포고문을 손글씨로 쓰며 가슴에 새기는 프로젝트가 2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11일 고창군은 '동화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을 맞아 지난 5월 10일 시작한 고창 무장포고문 필사 챌린지가 마쳤다 고 밝혔다. 60일간 3000여명이 참여 했다.

고창무장포고문 챌린지는 지역 초·중·고등학교생부터 노동자, 농민들까지 큰 호응을 얻으며 SNS에서 확산 됐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혜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고창군 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무장포고문을 읽어보며 각자가 마음에 드는 글귀를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었다.

특히 군민들 스스로 필사 인증샷을 SNS(#무장포고문손글씨, #고창동화농민혁명 등 해시태그)로 실어 나르면서 고창동화농민혁명과 무장포고문, 무장포고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알려 나가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포고문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



한 것은 사람에게 인원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해 '의(義)의 깃발을 차켜 들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로 이어진다.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동화농민혁명 지도부가 고창군 무장면에서 전국적인 혁명을 시작하며 포고문을 선언했다.

동화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여기에 동화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민족·민중 항쟁의 근간이 되는 선언문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gift sets.